

홀트소식

AUTUMN 2021 VOL.202





가을 이야기

홀트학교 박애스터 교사와 예그리나 오케스트라의 고등학생 단원들(첼로 동혁, 바이올린 권정민, 클라리넷 주찬이 학생)



Contents

- 04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06 좋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 08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 10 맞춤형 프로젝트 '희망드림'
- 12 음악으로 전하는 스승의 사랑
- 15 함께하는 온라인 공부방
- 16 네팔로 전달된 희망
- 18 하울이의 여섯 번째 손가락, 그 후 이야기
- 20 옆친 데 댁친 격, 두 형제 모두 치료가 필요합니다
- 22 나의 특별한 날을 너에게 선물할게
- 24 새음학교, 홀트패밀리샵#을 통해 맺어진 인연
- 27 우리는 홀트패밀리!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 29 기업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봉사활동 "나를 지켜주세요."
- 31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설태호 이사장(주북상사 대표)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백 이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 정익중 이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장재훈 감사(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오윤숙 감사(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광주지부 062)227-8877
 경기지부 031)217-3292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6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부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251-8014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홀트대구어린이집 053)746-7504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들 042)585-3004
 고운들 031)216-9004
 아름들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마포클로버 02)322-3325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02)331-7086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02호 · 계간 발행일 | 2021년 10월 20일 발행인 | 설태호 편집인 | 이수연
 발행처 |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73~6 ARS후원 | 060-700-1006
 홈페이지 | www.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좋은 사연 · 좋은 제언 | pr@holt.or.kr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후 아동의 적응과 성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아동에게 예상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철저히 아동 입장에서 살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이 중심이 되는 상담과 교육,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는 '사후관리 서비스'와 '홀트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서비스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친양자 입양신고일'¹⁾로부터 1년 동안 입양 부모와 아동의 상호 적응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입양가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본원칙

- 1)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최초 1년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 2) 입양부모에게 입양 진행 과정(입양 신청, 아동 결연, 아동 인도 등) 마다 입양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후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사후관리 목적, 방법, 횟수 등) 하여 사후관리 서비스가 실시됨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사후관리 매뉴얼의 변화

구분	변경 전		현재	
상담 횟수	1년간 총 4회		1년간 총 6회	
진행 방법	4회	2회: 가정방문 필수	6회	3회: 가정방문 필수
		2회: 전화, 이메일 상담 가능		3회: 대면상담 원칙
상담 시기	1회차	입양아동 인도 후, 1~2개월 이내	1회차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2회차	1회차 가정방문 후, 아동 발달, 적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사후관리 실시	2~4회차	초기 집중 사후관리 실시에 따라 6개월 이내 4회의 사후관리 실시

3) 사후관리는 입양가정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입양부모의 뜻과 다르게 입양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진행과정 및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양기관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입양부모로부터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전달받아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제출합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입양가정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정을 방문 또는 대면상담하고 입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해야 합니다.

1) 가정법원이 입양부모에게 입양을 허가하며 발급하는 '가정법원 허가서'를 아동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일자

#입양가정 상담

입양아동이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입양부모와도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상담을 연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과 입양부모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매뉴얼에 기반하여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입양 전, 후로 '입양전제 위탁가정'과 '사후관리 입양가정'으로 구분하여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적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입양전제 위탁가정 상담 서비스 : 부모양육효능감검사(K-PET) 지원(1회)

2) 사후관리 입양가정 상담 서비스 : 소아발육 표준치료를 통한 아동발달 확인(6회), 양육스트레스검사(K-PSI-4) 지원(2회)

사후관리 서비스로 실시되는 입양가정 '양육스트레스검사(K-PSI-4)'는 검사 결과를 통해 입양부모가 아동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이해하여 스트레스 요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돕고, 아동 양육의 효능감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평가 상담 중, 전문가와의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홀트심리상담센터'에 연계하여 전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홀트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입양아동 심리정서지원¹⁾

입양아동이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아동의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의 소견 외에도 입양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동발달 평가, 기질 검사, 아동발달 검사 및 치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양부모 심리정서지원²⁾

입양부모가 아동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육 스트레스, 양육유형, 양육태도 등 관련 검사를 지원하여 안정된 아동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상담 및 치료

구분	프로그램 내용
심리상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족, 부모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
언어치료	아동의 언어능력(언어 이해 및 표현)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언어발달을 유도
놀이치료	놀이활동을 통해 아동이 가진 심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발달시기에 맞게 성장 지원
미술치료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아동의 내면을 표현하고 심리적 회복 지원
부모/가족교육	부모역할 및 가족의사소통교육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자녀양육에 대한 정서적 부담을 완화
집단상담	비슷한 욕구를 가진 소수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공감 및 지지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 해소

#지원 가능한 심리검사

지능/인지, 학습 및 진로, 자폐증 진단, 발달, 사회성, 신경심리 장애진단, 인성, 불안, 대인관계, 행동, ADHD, 그림, 언어 외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이 입양된 이후 입양부모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받고 있는지, 입양부모와 애착 관계를 원활히 형성하였는지 등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입양가정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상담과 교육,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입양가정이 중심이 되는 입양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입양아동 심리정서지원 및 입양부모 심리정서지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에 따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좋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시설아동 지원프로그램 '여기 같이 어때'

코로나19 이후 각종 단체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특히 여러 명의 아이가 모여서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은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오던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시설아동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설 내 프로그램에서 사람들과 만나며 한창 뛰어놀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아이들은 이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외부활동도 모두 중단되자 심리적 불안감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시청 등 움직임이 적은 실내활동으로 시간을 주로 보내다 보니 일상생활 속 활동량이 감소하여 면역력 약화 및 비만 등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시설 아동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종합 숙박·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컴퍼니의 후원을 받아 놀이체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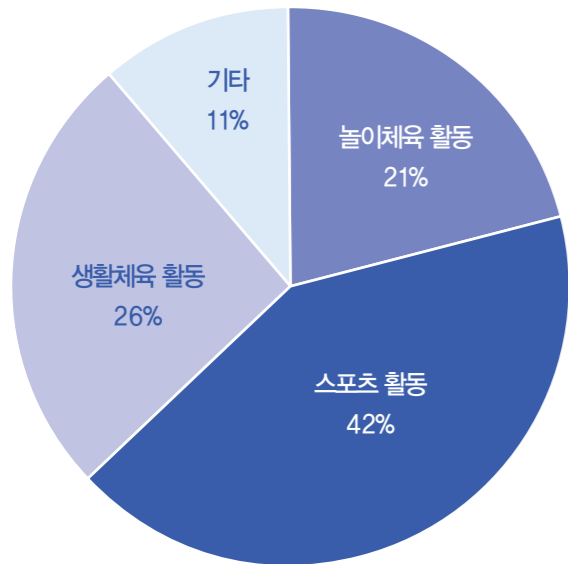
여기 같이 어때 시즌 1, 아동복지시설 놀이체육프로그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활동 범위가 축소된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놀이체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국아동복지협회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신청한 36개 기관 중 경기·인천 2곳, 강원 1곳, 전남 5곳, 전북 3곳 등 총 11개 아동복지시설을 선정하여 2020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각 시설에 전문 놀이 체육 강사를 파견하고 필요한 교구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실내 체육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시설별 사업비 사용 내역

지원 영역 중 스포츠 활동(탁구, 축구) 42%, 생활체육 활동(요가 포함) 26%, 시설 내 놀이체육 활동이 21%, 기타(방송댄스 외) 11%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는 체육을 좋아하는데 코로나19때문에 친구들과 잘 놀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이번에 놀이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형, 동생들과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 수요일 오후 4시 30분이 되면 활력이 생겨서 항상 수요일만 기다려졌어요. 놀이체육을 통해 몸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졌어요!



여기 같이 어때 시즌 2, 공동생활가정 여행지원프로그램



후원 **여기어때.**

놀이체육에서는 그동안 못해봤던 새로운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축구경기, 피구 등 팀을 나누어서 하는 게임은 협동심과 서로 존중하는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팀워크를 키워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체육활동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진 것 같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하고 싶어요!

성공적으로 마친 시즌 1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자유롭게 여행하기 어려운 전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들에게 1박 2일 동안 색다른 시간을 제공해주고자 '여기 같이 어때 시즌 2'를 진행합니다. 신청한 공동생활가정 중 15곳을 선정하여 숙소 예약, 차량 렌트, 액티비티 체험 등 여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참가 인원은 소규모로 제한하고 여행 전 방역 교육 실시,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 등 개인방역키트를 전달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방지를 위한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룹홈 가족과의 추억여행, 첫 비행기 타기 도전, 언니·오빠들의 퇴소 전 이별여행 등 각 그룹홈의 상황과 테마에 맞는 여행을 기획하여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시즌 2에서도 많은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글 아동청소년팀 서정기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정아동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가정에는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소득은 더 감소하였지만, 외부 활동 제한으로 가정 내 식료품비가 증가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위기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직면하죠. 노동취약계층의 경제 위기 해소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위기가정에게 '회복'과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통합 지원하여 아동과 보호자, 가정 전체의 안정화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나누어 진행했던 주거, 의료, 심리정서 사업을 2021년에는 생계, 교육 항목을 추가하여 총 5개 항목으로 통합·기획하였습니다. 5개 항목 중 최대 2개 항목(7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전국단위로 매월 대상자를 모집하여 지원한 결과, 9월까지 총 89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지원인만큼 사례마다 시급성을 지니고 있어 대상자 선정 후 다음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필수요건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고, 기관(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한 가정
- 우선선정요건 :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노동취약계층(비정규직/기간제 근로, 파트타임, 일용직, 특수고용직)

▶ 지원내용

- 생계비 : 미납분(공공요금, 관리비), 향후 생계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정을 가족 수에 따라 최대 3개월 지원) 최대 300만 원 지원
- 주거비 : 연체임차료(월세), 일시주거비 최대 200만 원 지원, 개보수(도배, 장판 등) 최대 400만 원 지원
- 의료비 : 아동 또는 보호자의 검사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등 최대 300만 원 지원
- 심리정서비 : 아동 또는 보호자의 심리치료, 상담비 최대 200만 원 지원
- 교육비 : 아동 교육활동 지원비, 학원수강료 등 최대 100만 원 지원

사례1 생계비 지원

미혼한부모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과 구직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심리적 불안정한 가운데, 3개월간 향후생계비 지원을 받은 사례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 고마운 선물'

안녕하세요. 21개월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29살 미혼한부모입니다. 아버지 병간호와 출산, 육아로 경력이 오랫동안 단절되었고 코로나까지 이어지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 모아둔 생활비는 점점 바닥을 보였죠.

지원을 받기 전에는 항상 식료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코너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만 구매했어요. 아기에게만이라도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밤마다 눈물을 흘린 날이 많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심적으로도 안정되더라고요. 부정적이었던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덕분에 실직 후 3년 만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경제적이든 심적이든 여유가 있어야 희망이 생기고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례2 주거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지던 중, 호주에서 일하는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퇴거위기를 맞아 미납된 월세 지원을 받은 사례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 결과를 듣는 순간,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희는 3년 전까지 해외에서 생활하다 빈손으로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가정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실직하며 일상생활은 물론 집세도 정만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홀트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큰 도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3 의료비 지원

부모의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다자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의료기기 구매 부담을 해결하고자 지원받은 사례
아동의 청력이 손실되어 가고 기능적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의료기기(보청기)를 구매. 착용한 보청기로 TV 시청도 가능해지며 일상생활 변화에 가족 모두 긍정적인 기운을 얻음.



사례4 심리정서비 지원

장애를 가진 오빠를 둔 동생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이상 증상을 보여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심리치료를 지원한 사례



사례5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으로 자녀의 학습 부진으로 고민하던 중, 교육비를 지원받아 방문학습지를 진행한 사례



아동과 가정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맞춤형 프로젝트 '희망드림'

위기 미혼한부모가정 긴급지원사업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실직, 질병, 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가사노동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정의 경우 주변 지지체계 또한 부족한 현실이죠.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혼한부모가정의 경우 생계의 위협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서비스업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업체에 근무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계층 중 하나인 셈입니다. 이러한 각종 위기상황은 미혼한부모를 좌절하게 하며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상황에 놓인 미혼한부모가정의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맞춤형 프로젝트 '희망드림'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주거비/교육·자립훈련비/의료비 중 가점당 최대 2항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며 지난 3년 동안 총 63가정(중복지원 포함)에 약 1억 1천7백여만 원의 긴급지원비를 제공하였습니다.

● 지원대상자 수

(단위 : 가정)

지원 항목	생계비	주거비	교육·자립훈련비	의료비	합계
2018년	3	6	3	4	16
2019년	6	7	4	9	26
2020년	5	1	4	11	21
합계	14	14	11	24	63

*2개 항목 중복지원 포함

●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 항목	생계비	주거비	교육·자립훈련비	의료비	합계
2018년	5,512,630원	8,302,170원	8,026,400원	12,800,000원	34,641,200원
2019년	3,293,720원	7,679,040원	2,262,860원	19,298,560원	32,534,180원
2020년	5,647,170원	900,000원	9,400,000원	33,869,700원	49,816,870원
합계	14,453,520원	16,881,210원	19,689,260원	65,968,260원	116,992,250원

● 희망드림 지원전후 사례

“사는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근무를 못 하고 있어요. 제 일이 방문교사라 대면수업을 해야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원치 않으셔서 수업을 못 하고 있고 급여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기약 없는 무급 실직상태와 같아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생계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어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참 막막해요.”

↓ 생계비(식료품비) 4개월 간 지원

“다행히 조금씩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라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생계비 지원 덕분에 우리 아이 안 굶기고 잘 먹일 수 있었고, 일을 점차 복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내게 손 내어주고 당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맞춤형 프로젝트 '희망드림'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마저 이용하기 어려웠던 미혼한부모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글 미혼한부모지원센터

음악으로 전하는 스승의 사랑

홀트학교 박에스더 교사 인터뷰

‘대한민국 스승상’은 사명감으로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은 이 시상식에서 홀트학교 박에스더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교육현장에서 가르침의 참된 가치를 실천하고 음악교육에 헌신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장애 학생 오케스트라의 기적

박에스더 교사는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꿨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곡이든지 음악을 들으면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해낼 만큼 재능이 있었죠. 특수교육으로 진로를 정하고 잠시 피아노와 멀어졌지만, 음악은 여전히 그에게 떼려야 뗄 수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후천성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연민이 가슴 한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수교육이 제가 가야 할 인생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즈음 특수교육의 음악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저 역시 재능기부로 피아노 레슨을 하는 등 음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996년 홀트학교에 부임해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음악은 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홀트학교에서 박에스더 교사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창단·운영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관객과 만났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9명의 단원으로 시작한 학생 오케스트라 ‘에그리나’가 대표적이죠. 그는 당시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 즉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의 악기를 지도해줄 재능기부자와 악기 수리를 무상지원해 줄 수 있는 재능기부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창단 초기에는 비장애인도 어려운 악기 연주를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나타내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분들께 ‘우리 학생들도 가능하다’고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기부받은 중고 악기와 악기사의 지원을 통해 악기를 제공했구요.”

아이들이 현악기의 개방현이나 관악기의 세 음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어려운 클래식 곡을 학생들 수준에 맞게 직접 편곡하여 지도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지난 2013년에는 홀트학교가 전국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교육부 지정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수십 회의 초청공연과 재능기부 공연, 음악회 찬조공연을 하며 장애 학생의 변화 가능성을 지역주민에게 선보였고, 자연스럽게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불협화음이 아름답게 들려요

‘에그리나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오던 박에스더 교사는 창단 1년 후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고 멜로디 연주가 가능한 5명의 단원으로 ‘에그리나 앙상블’을 구성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관현악 앙상블을 파트별로 운영하여 교내외 행사와 군부대 위문공연을 비롯해 지역사회 행사 봉사공연과 초청공연 등에서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장애 학생에게 효율적으로 악기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박에스더 교사는 2013년 5월, 18명의 교사와 함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이후 수년간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곡을 연습하고 공연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에 감동을 한 동료 교사들이 사비를 털어 악기를 배우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9년에는 학부모 대상의 앙클롱(밤벌, 대나무 관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민속 타악기)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으로 감동을 나눴습니다.



“지적장애로 인해 오선 악보를 읽기 어려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오케스트라에 흥미를 느끼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숫자를 써서 음을 나타낸 숫자계명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숫자악보와 숫자지휘를 접목하여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지휘를 보며 숫자계명을 외운 학생들은 특별한 지도 없이 멜로디언 건반에 있는 숫자만 보고도 한 곡을 거뜰히 연주했고, 오케스트라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도 숫자계명이 적힌 오선 악보를 보고 손쉽게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박에스터 교사는 약 100여 곡을 숫자악보로 만들어 악보집을 제작하는 열정을 보였죠.



그는 오케스트라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꾸준히 앞장섰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0여 명의 학생으로 이뤄진 ‘꾸오레 합창단’, 장애·비장애를 떠나 인근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급 음악동아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어깨동무 음악회’ 등을 운영하여 음악교육에 헌신해왔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올해의 스승상, 2018년 자랑스러운 특수교육인상, 2020년 장애인먼저 실천상 복지TV회장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아이들의 연주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요. 제게도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테니까요. 좋은 음악을 들은 아이들은 연주할 때도 몸에서 즐거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관객들에게 전해집니다. 전문가의 음악을 들을 때는 무척 예민한 제 귀가 우리 아이들의 불협화음은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들리는 것이 참 신기해요. 음악 안에서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감동만 남길 바랍니다.”

장애 학생들이 뭘 하겠느냐는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뛰어넘은 홀트학교 예그리나 오케스트라의 기적, 박에스터 교사의 바람이 모든 이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함께하는 온라인 공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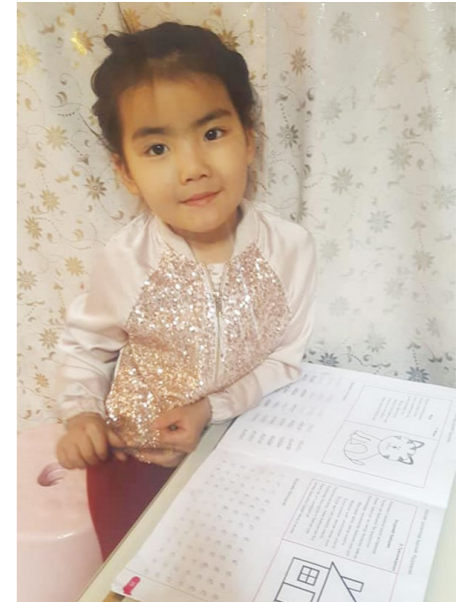
해외 도시슬럼가 아동 온라인 교육

문을 닫은 학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1억 6천 8백만 명 이상의 아동이 1년 이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은 더 큰 교육 공백의 부담을 겪고 있으며, 약 4억 6천 3백만 명이 휴교 기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올해 2월 학교 문을 다시 닫은 후 아직 열지 못하고 있으며, 네पाल은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문이 계속 닫혀있습니다. 몽골은 작년 11월 휴교령을 내린 후 9월 조심스레 다시 문을 열었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로 곧 다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도시슬럼가 아동의 교육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위기는 도시 슬럼가 아동에게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디지털 기기 등 비대면 기기 접근성이 낮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 수업을 시작해도 일반 아동과 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캄보디아와 몽골 가정 대부분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어 완전한 비대면 수업이 어렵습니다. 홀트드림센터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학생들을 초대하고 센터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짧은 수업 영상을 게재하여 학생들이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빌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 1회 미리 나눠준 학습지를 혼자 풀어보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질문과 수업 이해도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팔로 전달된 희망

코로나19 의료물품 지원



지난 4월, 인도로부터 시작된 2차 팬데믹 현상이 네팔을 강타한 후 일일 최대 확진자 수가 9,000명대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난 후 평균 1,00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3,000만 인구 대비 여전히 높은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사를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며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해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자 네팔 정부는 의료 외적인 용도의 산소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¹⁾ 특히 수도권 밖의 지방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카트만두 서쪽의 간다키주(Gandaki province)는 2020년 대비 세배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²⁾

1) Why is there still an oxygen shortage? (여전히 산소가 부족한 이유, 21/05/23, NEPALI Times)

2) Covid-19 cases in Gandaki has tripled compared to same time last year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3배 증가한 간다키, 21/8/17, The kathmandu post)

급박한 상황 속에서 네팔은 산소발생기와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장비) 등 부족한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긴급히 세브란스병원과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에 지원을 요청했고, 각 기관에서는 흔쾌히 수락해주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지원한 산소발생기 20대와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에서 지원한 PPE 150세트는 인디아항공을 타고 인도 델리를 거쳐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산소발생기는 카트만두, 랄리트푸르와 간다키 내 8개 의료 기관에 배분하였고, PPE는 28개 보건소에 배분하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네팔홀트드림센터가 위치한 코커나 지역은 5,000명 이상 살고 있으며 보건소 단 한 곳만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조차 제대로 된 보호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의료인력들은 항상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코커나 보건소는 PPE 지원을 통해 훨씬 안정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간다키 지역병원 의사는 산소 부족 때문에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없어 절망스러웠으며, 지원해준 산소발생기를 잘 사용하여 더 많은 환자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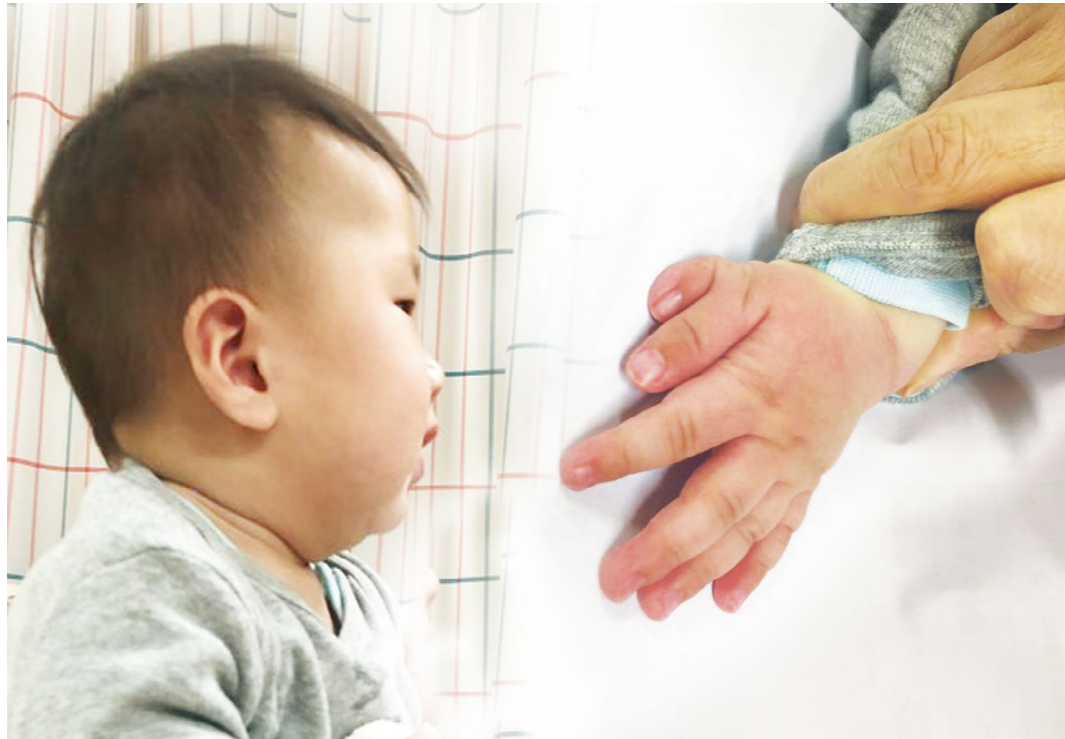
네팔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돕기 위해 망설임 없이 지원을 수락해준 세브란스병원과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 해외사업팀 한세희



하울이의 여섯 번째 손가락, 그 후 이야기

입양대기아동 의료비 지원 캠페인 후기



태어난지 9일 만에 엄마와 헤어진 하울이

폐가 덜 퍼져서 생기는 과다호흡과 황달 증상, 그리고 왼손 엄지손가락 옆에 하나 더 생긴 손가락 때문에 하울이(가명)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하울이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위탁 어머니는 하울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촉각 놀이를 통해 다양한 자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그림책과 장난감을 작은 손에 쥐여 줘 봅니다. 하지만 여섯 손가락을 가진 왼손으로는 제대로 무언가를 잡기가 어려워 금세 힘없이 떨어뜨리고 맙니다. 하울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지증 수술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울이 수술 잘 마쳤습니다!

캠페인 진행 후 많은 분의 지원으로 하울이의 왼손에 있던 여섯 번째 손가락을 없애는 다지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하울이가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닿은 덕분인지 하울이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수술 후 받은 검진에서 예후도 좋으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견도 들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수술 부위를 붕대로 감아두다 보니, 하울이가 물건을 집으려고 할 때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며 불편해했는데요. 붕대까지 모두 다 푼 지금은 엄지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소근육 발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하울이는 연필을 잡고 낙서도 하고 블록도 쌓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논답니다.

평생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하울이는 밝고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공이 굴러가는 모습에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고, 주변에 놓인 물건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한 번씩 꼭 찰라보는 귀염둥이죠. 하울이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위탁 어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일 것입니다. 위탁가정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가장 기다렸던 소식은 바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 이제 하울이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입양대기아동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하울이와 같이 보살핌과 치료가 필요한 입양대기아동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지 못한 채 출산을 맞이한 경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여러 가지 의료적 문제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은 입양대기아동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 후원자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하울이의 의료비로 우선 지원되었으며, 이후 하울이와 같은 입양대기아동의 양육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하울이 수술 전
2,3 하울이 수술 후

옆친 데 덮친 격, 두 형제 모두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기가정아동 심리치료 지원 캠페인

민준이 엄마는 학교에서 온 연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또래보다 성장이 느린 줄로만 알았던 민준이(가명, 9세)가 학교 수업시간 중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등 돌발 행동이 잦아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방문한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민준이가 언어발달이 늦어 꾸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치료시기를 미룰수록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엄마는 당장 다섯 가족의 생계비가 급한 상황 속에서 치료를 자꾸만 망설이게 됩니다.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

민준이 아빠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일용직 노동으로 다섯 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도 생활비를 위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을 보았으나 어린 세 아이를 양육하며 일하기는 쉽지 않았죠. 현재 국가에서 지원받은 생계비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것이 어릴 적 어려웠던 가정형편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설상가상, 막내 상민이 마저 언어발달이 느려요

다행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심리상담 바우처로 민준이는 단 몇 회기라도 심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엄마는 민준이의 언어치료를 받으러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막내 상민이(가명, 4세)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함께 센터에 갑니다. 매번 형의 치료를 기다리며 센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상민이를 주의 깊게 보던 치료사 선생님은 엄마에게 막내 또한 언어발달이 많이 늦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옆친 데 덮친 격, 첫째 민준이에 이어 막내 상민이까지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엄마는 힘들었던 본인의 유년시절이 대물림되는 것만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민준이네 가족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민준이네 부모님은 언어 발달 지연 진단을 받은 두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당장 치료해주고 싶지만, 눈앞에 놓인 치료비라는 큰 장벽 앞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친구들과 뭘 하고 놀아야 할지, 즐거운 고민만 가득해야 할 아이들이 치료비라는 무거운 걱정거리로 더는 시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전국 위기가정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민준이네 가정에 우선 지원되며, 이후 민준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아동의 심리치료비로 지원됩니다.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나의 특별한 날을 너에게 선물할게

특별한 후원 캠페인

후원자님의 특별한 날은 언제인가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들은 존재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후원자님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소중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후원' 캠페인. 후원자님의 사연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10월에 예정된 결혼을 기념하여 특별한 날을 더욱더 뜻깊게 보내고 싶다면 후원을 결심한 서주혜·이준수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 부부, 기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결혼을 앞두고 주변 분들에게 받은 사랑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이웃과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건 어떨까?'라고 다짐하였고, 사회복지사 부부로서 기부 문화가 널리 퍼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특별한 후원 홈페이지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첫 돌 기념으로 후원하신 분의 이야기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특히 아동과 여성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해 지원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부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후원자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으니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을 기념하며

후원 이후, 저희 사진으로 만든 후원증서를 보내주셔서 감동 받았어요. 작가님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제작된 캘리그라피 액자 선물 역시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한부모가족이 직접 만든 동화책도 전달받았는데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담겨 다시 한번 감동하였습니다.

살면서 모든 순간에 기념할만한 일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선물을 사기도 하죠. 하지만 물질적인 부분을 통해 얻은 기쁨보다 이렇게 후원을 통해 얻은 기쁨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사랑과 감사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보세요. 행복은 배로 돌아옵니다!

♥ 특별한 후원 속 특별한 이야기

“좋아하는 가수의 생일을 기념하여 팬클럽에서 후원하고 싶어요!”

“어린이날인 만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어린이가 웃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후원합니다.”

“홀트에 후원한 지 벌써 7주년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더욱 응원하고 싶어 후원합니다.”

“20대 마지막 생일을 기념하여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받는 것도 좋지만 나누는 것도 기분이 좋네요^^”

“사랑하는 제 아이의 첫 돌을 기념하여 후원합니다. 제 딸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에서 살기 바라는 작은 성의입니다.”

특별한 날에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625명의 후원자님. 앞으로도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정과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님의 특별한 날을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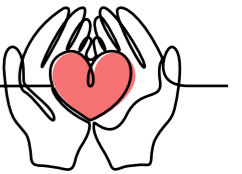
글 나눔참여팀 이순주

♥ 특별한 후원이란?

특별한 후원은 기념일 후원으로, 생일, 첫 돌, 결혼기념일, 나만의 기념일, 팬덤 후원 등과 같이 기념일에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 캠페인입니다. 나의 특별한 날을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과 함께 나누어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소중한 후원금은 입양대기아동, 미혼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아동, 장애인복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별한 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새음학교, 홀트패밀리샵#을 통해 맺어진 인연

중소상공인 나눔캠페인 '홀트패밀리샵#'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기독교 대안학교 '새음학교(前 두레학교)' 학생들은 우리회와 인연이 참 많은데요. 2017년부터 홀트패밀리샵#을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작년 연말에는 50여 년간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해 우리회 주치의로 근무하신 조 병국 前 원장님의 저서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를 읽고 꼭 한 번 원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여 원장님께서 직접 학교에 방문 하시기도 했습니다.

새음학교는 매년 7학년(중학교 1학년)이 되면 3박 4일 동안 지리산 나눔 종주를 하는데요. 후원 대상을 정한 후 주변 친구, 가족, 이웃분들에게 후원을 약속받아, 학생들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지리산 등반 코스 대신 천마산 당일 등반으로 나눔 종주를 대신하였는데요. 돌도 많고 흠길에 미끄러지기도 하여 생각보다 험한 산행길이었습니다. 다리에 알이 잔뜩 배겨 다음날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6시간의 산행 동안 학생들이 걸은 걸음은 결코 소진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 살아갈 학대피해아동을 떠올릴 때 우리의 아픔은 지극히 작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과 동시에 종주 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우리회에 전달하며 나눔에 대한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7학년 때 종주를 하며 결심했던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은 11학년(고등학교 2학년)이 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색다른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새음학교 학생들의 나눔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 홀트패밀리샵#에 가입한 새음학교 지혜반 학생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음학교 11학년 박다운, 박민하, 박채윤, 이예원, 조하은입니다. 반 친구들 대표해서 소식을 전하러 나왔어요!

Q. 정말 반가워요! 이번에 어떤 나눔을 실천했는지 소개해주세요.

저희 반은 2017년 홀트패밀리샵#에 가입하면서 지금까지 지속해서 홀트아동복지회의 위기가정아동들을 후원해왔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입양대기아동들과 위탁어머니들께 선물할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어보았습니다.

Q. 5년 동안 후원한 것만으로도 멋진데, 마스크스트랩을 직접 만들어 기부할 생각을 한 게 정말 대단하네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즐겁고 의미 있는 기부를 하고 싶었어요. 마스크가 일상에 깊이 들어온 만큼 연관성 있는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어 기부하면 어떨까 생각했죠. 만드는 과정도 즐겁고, 알록달록 예쁘게 만든 비즈 마스크스트랩을 선물 받는 상대방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Q. 비즈로 만든 마스크스트랩이라니,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줄에 작은 비즈들을 하나하나 끼워 넣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야 하고 실수하거나 손에서 한번 놓치면 외르크 쏟아져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기도 했어요. 만드는 것은 힘들었는데 직접 만든 마스크스트랩을 아기와 위탁어머니들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니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 완성된 마스크스트랩 모습

Q.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위탁어머니들께 소중한 마스크스트랩을 잘 전달했어요. 소감 한마디해주세요!

민하) 모두가 거리를 뒤편하고, 힘든 시기인데 무엇보다 어머니들과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작게나마 소소한 행복을 유지하며 지내면 좋겠어요. 멀리 있지만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다은) 저희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참 불편하고 답답한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을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예쁜 아이들과 행복한 추억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채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과 그 아동이 입양되기까지 가정에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위탁어머니들께 저희가 만든 마스크스트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아동들도 마스크 쓰기 답답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작은 나눔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랄게요!



▲ 위탁어머니가 마스크스트랩 착용한 모습

예원) 처음 만들어본 마스크스트랩이라 조금 서툴러 보일 수 있겠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예쁘게 잘 사용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글 나눔협력팀 조은하, 홍보팀 우은영



홀트패밀리# 은?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는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일반매장, 자영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 학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물, 학교 학급, 어린이집 등 규모와 종류와 관계없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풍성한 사랑과 행복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oltshop.or.kr
후원문의 02-331-7000



우리는 홀트패밀리!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비대면 후원자 소모임, 해피홀트데이

지난 9월, 올해 두 번째 후원자 소모임 '우리는 홀트패밀리!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기정화 식물 스칸디아 모스 DIY 키트를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사진 액자를 만들고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한곳에 모여 나눔 이야기를 공유할 수는 없었지만, 정성과 사랑을 담아 남겨주신 후원자님의 나눔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이든맘

"진정한 나눔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 제가 다니던 교회에 홀트 홍보대사인 박요한 목사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도 함께 홀트패밀리가 되기로 결심했고, 결혼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홀트패밀리랍니다! 이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까지 셋이 함께 홀트패밀리♡"



@아이스크림

"서로 나누면 달콤한 행복!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기에 홀트패밀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쓰

"마음을 나눠 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홀트패밀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운정기부천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생기고 나니 주변 아이들에게 더 시선이 가게 되고, 소외된 아이들을 조금 더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행복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아이를 낳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 결손 가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해피M

“함께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쁨을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전부터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다가 누군가의 미래를 응원해주는 결연후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제가 받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해피홀트데이 이름에 걸맞게 참여한 후원자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공감이 되어주는 말로 함께해주신 후원자분들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주시는 모든 홀트패밀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글 나눔지원팀 송하은

해피홀트데이란?

다양한 정기후원자들이 분기별로 모여 활동과 함께 각자의 나눔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홀트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싶은 친구, 연인, 가족들을 초대하고 다른 후원자들과 소통하는 소모임입니다. 현재 해피홀트데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love.holt.or.kr/join/sponsor

기업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봉사활동 “나를 지켜주세요.”

위기가정아동지원캠페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봉사활동 참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는 비대면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봉사활동인데요. 올해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동국시스템즈의 임직원들이 따로 또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었습니다. 임직원들의 참여 소감을 들어볼까요?

#삼성생명

아들이 기숙사에서 공부해서 함께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핸드온 봉사활동은 저와 아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북커버를 선물 받을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도 해보고, 학교생활도 이야기 나누면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 지금심사팀 심사지원파트 박원열 프로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부터 아빠까지 온 가족이 함께 북커버를 만들면서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누군가 북커버를 받고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 설레고 좋았답니다.

- 대구중앙지역단 경산지점 민근희 프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느질을 이용해서 북커버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도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만든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특히 북커버의 색감이 너무 예뻐서 모든 책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 목포지역단 박정미 프로



#KB손해보험

책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북커버를 한땀 한땀 바느질하며 아이들의 꿈도 상처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길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 보험리스크파트 이주현 대리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모든 아이가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북커버를 만들었습니다. 북커버를 통해 아이들이 책을 더 가까이하게 되어서 독서를 통한 배움과 상상력의 기쁨을 알아갈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장기심사파트 이지아 선임

*b KB 손해보험



#동국시스템즈

아이들이 제가 만든 북커버를 쓸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좋은 봉사활동 경험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 Infra운영팀 이승환 사원

위기가정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어 기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활동에 더 관심을 갖는 어른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인재경영팀 최정임 사원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은

위기가정아동을 함께 지키고 응원하기 위한 핸즈온 봉사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참여자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북커버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캠페인 참여기금은 위기가정아이들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북커버는 소재부터 제조과정까지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낡은 가죽을 재생산한 지투리 가죽 소재를 활용하였고, 가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물을 절약하는 건식 제조 방식으로 GRS(Global Recycled Standard)인증을 받았습니다. 위기가정아이들과 지구를 위한 봉사활동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글 나눔협력팀 조은하

캠페인 참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부터 단체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시, 개별 주소로 봉사 키트를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 ▶ 개인참여 : 홈페이지(love.holt.or.kr/dear3/)에 접속하여 캠페인 참여 신청 클릭!
- ▶ 단체참여 : 상담을 위해 02-331-7143으로 연락해주세요.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개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개소하였습니다.

입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양, 가정위탁, 입양대기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를 지원하며 진정한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를 실현하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의 가치를 구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청소년, 학대피해아동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취약계층에 특화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 정서 문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놀이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언어재활사,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역량 있는 자문위원들이 솔루션회의를 통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며,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부모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소 이후 공신력 있는 마포구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사업)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MOU를 맺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체계와 연계하며 통합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다.



이용안내 사전예약 후 상담 진행
예약 · 문의 02-331-7192~4
월~금 9:00~18:00
위치 서울 마포구 양화로1길 22, 4층
홈페이지 www.holt.or.kr/heal





탐리더스 김연숙 위원, 누적 후원금 1억 원 달성

우리회 고액후원자 모임 '탐리더스'의 김연숙 위원(에스아이주식회사 대표)이 2016년 가입 이후 꾸준히 기부를 지속하여 누적 후원금 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항상 나눔을 우선순위에 두며 더 많이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김 위원은 "아동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미혼한부모가정, 노인과 장애인 복지도 관심을 두고 있어 현재 지원 분야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 나눔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본부

디에디트 <머니사이드업>, 보호종료청소년과 꿈동이에 태블릿PC 지원



9월 9일, 디에디트(대표 이해민)는 새롭게 론칭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머니사이드업'의 이름으로 보호종료청소년과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1천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22대를 지원했습니다. 우리회를 통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디에디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가능성을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아동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 체결



9월 13일,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원장 오정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회에서 양

육 중인 요보호아동과 국내·외 입양대상 아동, 미혼모가정 및 한부모가정, 학대피해가정 아동 등을 위한 치료 프로세스가 마련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부

'뉴(NEW)동네정방' 홀트패밀리샵# 단체 현판전달식 개최



9월 5일, 대구·경북에 위치한 뉴(NEW)동네정방 8개 지점이 홀트패밀리샵#에 가입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과자·장난감·문구류 등을 파는 무인판매점으로, 앞으로 우리회와 함께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 전국장애인 도예공모전 금상 수상



성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르떼 아카데미'에서 전국장애인 도예공모전 금상(팀)과 입선(4팀)을 수상하였습니다. 작품명 '미소의 형태'는 작가의 개성을 미소를 통해 나타낸 작품으로, 일관된 형태가 아닌 감각적인 미소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경기도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업무협약



8월 18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설치 및 관리운영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멘토링 프로그램 '우리 마을 서포터즈'

대학생 봉사단과 비장애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우리 마을 서포터즈를 진행하였습니다. 멘토·멘티가 함께 멘토링 규칙 정하기, 아이스 브레이킹, 바다캔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참여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문화와 놀이 '플레이 키즈'

취약계층 아동들이 여름방학 동안 건강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플레이 키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10회기로, 소도구 필라테스, 발레 스트레칭 등 참여 아동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활동이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건강증진과 더불어 사회성까지 향상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실버카 전달식



신체기능이 약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카를 전달하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진행한 '카카오 같이가치' 온라인 모금액과 복지관 후원금으로 실버카 42대를 구입하여 어르신들께 선물하였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자구를 위한 발걸음, ECO 플로깅!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역사회를 깨끗이 만들자는 의도로 기획된 ECO 플로깅 캠페인에 하남시민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47,210보라는 소중한 발걸음과 함께 약 2,240L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종합사회복지관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어르신 건강카페' 오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 및 여가 생활, 친목모임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이웃만들기를 위해 어르신 매니저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사업

'오늘도 수고했어'

국립특수교육원과 달서구청의 지원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오늘도 수고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및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과 함께 자기효능감 향상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재활운동(요가), 집단상담(미술치료), 원예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침들

가족의 탄생



KTos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정 17세대, 35명이 가족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즐겁게 촬영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운들

나들이 프로그램

아동 양육과 학업 등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엄마들을 위해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사파리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도 관람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루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워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들

오감놀이

아기 월령별 집단 또는 개별로 국수, 과일, 채소, 과자,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오감을 자극하고 놀이를 통해 엄마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아기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대구클로버

가족공예 원데이 클래스

방학 동안 엄마들이 가족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분을 초빙하여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카드 지갑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잘 따라하는 엄마들이 가족공예에 오로지 집중하여 잠깐이나마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전클로버

양육코칭 '금쪽같은 내 새끼'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남궁선혜 교수님과 함께 미혼한부모의 양육방법을 점검하는 '금쪽같은 내 새끼'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 많던 엄마들에게 상황별로 구체적인 조언과 칭찬을 해주었으며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문화 친화프로그램 '도토 자락 휘날리며'



춘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총 10회기 동안 다도체험, 떡 만들기, 전통요리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전통 떡 만들기 및 명절에 대해 배우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학교는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62년 특수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공과 과정까지 총 29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여 명의 지적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자립과 취업을 목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은 나눌수록 자랍니다

국내후원

홀트사업후원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사업 지원

아동청소년후원

입양대기아동 양육,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 위기가정아동보호를 위한 통합지원

미혼한부모가족후원

자녀양육 및 교육, 주거 안정, 심리정서, 인식 개선, 자립역량강화 지원

장애인복지후원

보호, 의료, 심리상담, 특수교육, 직업재활, 스포츠재활, 자립 지원

해외후원

해외사업후원

극빈층의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사업후원

결연후원

국내·해외아동결연 후원

도움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아동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교육, 의료, 가정, 정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아동의 성장을 돕는 후원

- 후원상담 · 문의 02-331-7073~6
- ARS후원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미혼한부모 공간복지사업 HOLT 공유공방 |

가치만들

미혼한부모들이 함께 학습하고 같이 성장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 1 베이킹, 가죽공예, 수공예 분야의 전문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2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 3 자신있는 분야를 주제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 4 관심분야에서 활동중인 미혼한부모 및 전문가를 만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holtatelier.holt.or.kr

문의 미혼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3

세아그룹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이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



세아로부터 세상의 아름다움은 시작된다

든든하게 지탱하는 기둥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나르는 파이프로
실새없이 움직이는 엔진으로
흔들리지 않는 작은 볼트로

세아는 철강제품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SeAH